

#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 기금마련 행사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먼저 기금마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동포여러분, 열심히 뒤에서 수고 해주신 자원봉사자들, 여성회 자문위원회 분들, 이사님들, 회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총책임을 맡아 수고 하여주신 박루시 이사님과 이계일 이사님 그리고 재정위원회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중 많은 분들께서 이번 행사가 여성회 행사중에서 제일 좋았던 행사라고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셨고, 또한 여성회에서 하는 일들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칭찬과 더불어 한인 의사협회에서 기금을 보내 주셨고 또한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행사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참석자 여러분과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수로써는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때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여성회 사무실로 격려의 말씀은 계속 줄을 이었고 기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성회가 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때로는 힘이들고 어려울때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노력이 쌓여서 더 튼튼한 동포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노력의 열매를 또한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상희 회장

##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제 24 차 정기 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올해 23 주년을 맞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정기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 일 시: 2008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6 시
- ❖ 장 소: 캐나다 한인 여성회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회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차 례

1 면	감사의 글
2 면	여성회 소식
3 면	자원 봉사자의 글
4~7 면	주요행사
8~9 면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10 면	Funders / 여성회의 사명

### 여성회 소식

◆ 지난 2월 23일 토요일에 Richmond Hill에 위치한 Sheraton Parkway Hotel에서 '세대를 이어서' 라는 주제로 2008년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지연, 박태현씨의 진행으로 유상희 여성회 회장의 환영사와 이상훈 한인회 회장, 김성철 주 토론토 총영사, 그리고 온타리오주 이민부의 마이클 찬 장관께서 격려사를 하여 주셨다. 이어서 최재형씨의 테너 독창과 저녁식사 그리고 이번 행사의 스폰서인 TD Canada Trust 지역 부사장인 Joe Carabetta씨가 축사를 통해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무장의 여성회 소개 이후로 그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세대를 이어서"란 주제로 패션 쇼가 있었다. 이날 패션 쇼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패션과 보석 디자인 작품들이 선보였으며,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모델들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되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이러한 행사는 여성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금 마련을 위함도 있지만 한국계 디자이너들의 재능을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이사진과 직원들은 2008년 3월 29일에 라이어슨 대학내에 있는 Oakham House 에서 앞으로 여성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략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하여 이사와 직원간의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었으며, 한인 여성회의 사업과 이를 성취하는데 하나가 되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인 여성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원(1년/평생)이나 기부자로 여성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원 봉사자의 글

2007년 7월. 저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토론토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호기심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곳에 오긴 했지만 낯선 간판들과 컷가에 들리는 어색한 말들에 금방 주눅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모든 생활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생활에 익숙해 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겨울 문턱에 우연한 기회로 한인 여성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나 2세들에 관심이 많은 탓에,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한국의 모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모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실제 교육과정에서 펼쳐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던 차에 한인여성회에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이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실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난 1월부터 intermediate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교에서 한국어 도우미로서 몇몇 한국어를 제법 잘하는 외국학생들과 한국어로 이야기 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첫 수업에 들어간 나는 '아뿔싸,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며 어떻게 수업을 할 지 지레 겁이 났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온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내게 어떤 질문을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그 때의 모습이 바로 내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모습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어에 서툰면 서툰수록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꼼꼼하게 교안도 써보고 ESL학원에서 했던 액티비티들도 한국어 수업시간에 다시 활용해보았습니다. 혼자 모의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힘든 것은 교포2세 친구들에게 검증받아가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 더욱 애착이 생기고, 수업이 끝나고 재미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면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계획한 어학연수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았다면 짧았을 3개월 간의 시간 동안 여성회 안에서 만난 좋은 분들, 그리고 끝까지 결석하지 않고 나와준 고마운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찾아와 우리 글을 배우는 이들에게 한인 여성회가 한국을 알리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글학교 자원 봉사자

엄 수 현

여러분의 정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원고를 여성회로 보내주시시오.

문의: 한인여성회 416-340-1234

## 주요행사

### ♣ 셀프헬프그룹 모임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존감 향상에 대한 워크숍(1월), 수지침으로 지키는 건강(2월), 회원에 의해 진행된 요리강좌(3월), 그리고 한방으로 다스리는 건강한 식생활(4월)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 ♣ 다문화가정 모임

4월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 ♣ 부모 모임

매월 1회 자녀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효과적인 대안 방법들을 모색하고 나-전달법을 통한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워크숍

3월에 부부/파트너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건강한 식습관을 주제로 3회의 워크숍이 있었다.

### ♣ 건강한 마음 가꾸기 워크숍

4월에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및 분노조절을 주제로 3회의 워크숍이 있었다.

### ♣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

지난 2007년12월 부터 2008년 3월까지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이 여성회에서 있었다.

이 모임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뜨개질 기술을 배우면서 고단한 이민생활의 어려움 등 각종 경험담을 나눔으로 이민생활의 고립감 해소에 기여 하였다.

3월 마지막주에는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뜨사모') 회원들의 종강 파티가 있었다.

### ♣ 2008년 무료 세금 보고 클리닉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서는 3월과 4월 두달에 걸쳐 2007년 수입이 총 \$25,000미만의 가정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대행을 실시 하였다.

이번 클리닉 서비스에 220여명이 세금 보고를 위하여 한인 여성회를 방문하였으며, 세금 보고 클리닉을 순조롭게 마쳤다.

### ♣ 신규 이민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보고 설명회

지난 2월 16일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서는 김동균 공인 회계사를 초빙하여 2008년 세금 보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캐나다 세법 안내 및 소득세 보고를 위한 준비 안내가 있었으며,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세금 보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었다.

### ♣ 타민족 음식 문화의 이해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서는 2008년 2월 부터 월 1~2회 캐나다 내 타민족 음식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다민족 국가인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손조로운 정착을 지원코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요리교실과 슈퍼마켓 투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 여성회 세미나실 (27 Madison Ave.)에서 뿐만 아니라 (H-Mart 에서도 개최되어 토론토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 진행 스케줄

- 1월: 음식 문화, 식품 정보를 위한  
Loblaws 슈퍼마켓 투어(Empress Walk)
- 2월: 중국야채로 김치 담그기( H-mart)
- 3월: 중국식 돼지고기 완자와 돼지 목살을  
이용한 공복음 요리(여성회)
- 4월: 베이킹 기초 (여성회),  
중국 야채 볶음 요리(H-Mart)

### ♣ 영주권카드 갱신 정보 세미나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함에 따라 영주권카드 갱신을 해야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세미나를 세 번 실시하였다. 정보 세미나는 여성회 세미나룸 2층과 H Mart 세미나룸 2층에서 실시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서 영주권 카드 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을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

♣ 시민권신청 오리엔테이션

영주권카드 갱신과 더불어 이민자들이 갖는 또 다른 관심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안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 오리엔테이션, 개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 해밀턴 순회 서비스

한인 여성회의 정착서비스 업무가 3월부터 토론토 지역을 벗어난 해밀턴 지역에서도 순회서비스의 형태로 시작 되었다. 해밀턴 한인회와 한인 연합교회의 협조하에 이루어진 순회 서비스는 해밀턴 지역의 이민자들에게 세미나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에 실시된 정보 세미나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시민권 신청안내였으며, 세미나와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새로 시작한 순회 서비스를 통해서 한인 여성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해밀턴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 배우자 초청이민 및 부모님 초청이민 정보 세미나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배우자 초청 및 부모님 초청이민 정보 세미나를 3월과 4월에 개최하였다.

♣ 환경수세미 깔끔이 뜨개 자원봉사

뜨개질 교실 회원 여러분과 여성회 최기선, 이정준 자문위원께서 손수 뜨개질한 환경수세미를 기증, 2008 여성회 기금모금 행사에서 판매기금을 기증하였다. 환경수세미 기증은 기금 후원과 아울러 적은양의 세재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 정착정보와 함께하는 영어 교실

<정착정보와 함께하는 영어교실>은 정착에 필요한 실용정보와 함께 실제 상황에 맞는 영어 대화와 어휘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한인이민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영어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필요한 대화연습과 전문용어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매달 주제를 달리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영어표현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오랜 기간 동안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한 한인 여성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인이민자들에게 캐나다 사회에 보다 긍정적,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 스케줄

- 1월: 은행정보,
- 2월: 부동산정보
- 3월: 쇼핑정보
- 4월: 의료시설 이용정보, 은행정보 (H 마트)

매주 2시간씩 4회 총 8시간 동안 각 주어진 주제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매 수업마다 10명 이상의 참석자가 꾸준히 출석하였고 막연히 알고 있던 정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이 만족스럽게 평가되고 있다.

♣ H Mart 문화센터 회원들의 고통분담기금 후원

H Mart 문화센터 요리교실(강사: 이송우-H Mart 정육부 팀장) 1기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 \$800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인커뮤니티 내의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한인 여성회의 고통분담 기금으로 후원하였다.



사진:한인 여성회 신복실 부회장, 이송우 강사와 회원들

### ♣ “Job Finding Club”

지난 해 실시한 취업 이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인 Job Finding Club은 지난 네 번에 걸친 행사 결과,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1월 첫 모임에서는 다양한 취업 분야(IT, Accounting, Admin 등)의 선배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었고 개별적으로 각 분야에 관심이 있는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다. 그리고 참석한 취업 준비생들은 각기 자신들의 관심 분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다른 참석자들과 유용한 정보를 나누어 보는 시간도 되었다.

2월부터는 기존의 정보 나누기 시간 이외에 각 분야의 초대손님을 모셔서 좀 더 구체적인 분야별 취업 경험담과 취업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2월에는 현직 간병사이신 Joy Kim씨와 Globe and Mail 신문사의 Office Service Team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홍효실씨를 모시고 각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취업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3월에는 은행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현재 TD Canada Trust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 분(Kelly Oh, Suzanne Kang, Jason Choi)을 모시고 은행 취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월 행사에서는 특히 젊은 이민자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캐나다에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서로의 정보와 계획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4월에는 캐나다에 이민 오신 후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을 공부하고 현재 공립학교의 School Age

Program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미씨가 참석하여 유아 교육과 관련한 학교 수업 및 취업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미씨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토론토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조언도 해주었다. 특히 4월 행사에서는 참석하신 분들 스스로 정보와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정보 교류를 하자는 즉석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한인여성회의 Job Finding Club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한인 사회 취업 네트워킹을 위한 긍정적인 결실이기도 했다.

초대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한인으로 캐나다에 정착하시면서 겪으신 많은 경험담들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새 이민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취업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용한 정보이지만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토론토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업 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인여성회의 Job Finding Club은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며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한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이 구직을 하는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Job Finding Club은 앞으로도 매 달 네 번째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질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취업 선배들을 모시고 그들의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질 예정이다.



♣ ‘건강한 가정 지킴이’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커뮤니티 워크숍 및 졸업식

‘건강한 가정 지킴이’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커뮤니티 일반, 종교 단체, 한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9회의 워크숍이 열렸다. 아울러 2008년 4월 25일, 한인 여성회 2층 세미나룸에서는 재정 지원을 한 온타리오 법무부 관계자와 동료 지도자, 워크숍 참가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프로젝트 성과 보고와 함께 참가자들에 의한 토론과 퀴즈 대결 등 1년을 되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정, 보완 작업을 마친 영문과 한영문 매뉴얼도 발행되었다.



♣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 아웃리치 워크숍

캐나다 한인 이민 여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한인 여성회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손에 손잡고’-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의 아웃리치 워크숍이 1월 부터 4월까지 총 13회 42시간동안 각 한인 교회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1기 동료지도자들이 참가함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었다.

♣ 이동 건강 진료소

이민 여성 건강 센터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2월과 4월에 한인 여성회와 예수성심 성당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OHIP이 없거나 가정의가 없어서 유방암과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진료 서비스였다.

♣ 유방암 환우 지원 그룹

유방암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한 모임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노스욕 지역에서도 모임을 갖고 있다.

♣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프로젝트:

7개 소수민족 커뮤니티 동료부모지도자 졸업식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 동료부모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의 두번째 해 졸업식이 4월 12일 노스욕 시빅센터에서 있었으며 온타리오 트릴리움재단 (Ontario Trillium Foundation)의 3년 재정지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프로젝트는 각 가정의 가치관 중심의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내의 역량을 증가하므로써 7개 민족 언어 커뮤니티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성교육과 부모-자녀의 대화기술을 도모하기 위하여 벵갈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밀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106명의 부모님들이 훈련을 받았다. 한인 동료부모지도자는 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각 커뮤니티에서 훈련받은 동료부모지도자들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총 52회(212시간)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루기 힘든 성 건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동료부모지도자들은 커뮤니티 형성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과 어린이들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항들을 다루는데 헌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파트너 기관은 Asian Community AIDS Services, Toronto Public Health, Bloor Life & Information Skills Centre, 캐나다 한인 여성회, Queen West Community Health Centre, St Stephen's Community House, St Joseph's Health Centre-Women's Health Centre, Vietnamese Association Toronto 이다.

##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 *뜨개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봉 춘 자*

엄동설한 12월 초에 개강한 뜨개질교실은 어느덧 4개월이란 세월이 흘러서 오는 3월 네번째 목요일을 종강파티로 맞이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날씨는 추웠지만 TORONTO 이곳저곳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젊은 20대에서 부터 80대 노인을 가리지 않는 주부님들이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여성회에 모여 담소의 꽃을 피우며 뭉쳐진 타래의 실을 풀어 한코두코 바늘에 엮으며 코만들기, 목도리 뜨기 첫 강의로 가르치고 배우는 놀음을 하다보니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배우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드높은 가운데 때는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절기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여 자신의 손으로 뜬 목도리를 선물로 보내주려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받는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만해도 흐뭇한 그 심정을 이루다 말할수 없네요.

우리들 중 제일 나이 어린 영난씨는 두 주동안의 시간을 들여 몇번씩이나 풀고 뜨는 노력 끝에 잘 떠진 목도리를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쳐 주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선물을 받고서 “이거 네가 뜬거 맞니? 너 참 장하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였다고 나에게 귀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엄마는 남편에게 드릴 목도리를 밤 잠도 줄이면서 떼는데 코하나가 빠지는 실수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목도리를 뜨개교실로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의 검열에 걸려 불합격품으로 다시 풀어 떠야하는 곤욕을 치렀는데, 뜬 공이 너무 아까워서 “아이구 아까워라, 밤새 떼는데…” 하니 “이런걸 어떻게 선물로 드리니, 빨리 풀어.” 하여 우리모두는 한바탕 웃음으로 떠들썩 하였습니다. 또한 40대 엄마가 전번주에 배워간 뜨개 무늬를 다음주가 되어 떠 가져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뜨다보니 배운것과는 다른 아주 예쁜 무늬의 발명품이 되어 그에 대한 찬사로 온 방안이 가득하였답니다. 이렇게 뜨개교실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한 가운데 시간의 흐름이 빠르기도 하여 수업시간이 지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생활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외되어 우리 주부님들이 한주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3개월로 계획된 기간이 연기되어 4개월이 흘렀지만 참가자들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의 따뜻한 봄을 맞으면서 주부님들이 집안 청소며 집안일, 야외활동 등... 또 한가지는 날씨가 더워지면 손에 땀이 나서 뜨개질 하기에 불편하오니 헤어지기가 아쉬웁지만 돌아오는 2008년 겨울철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만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여성회에서 주부 뜨개교실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 정착 세미나 수강자 실비아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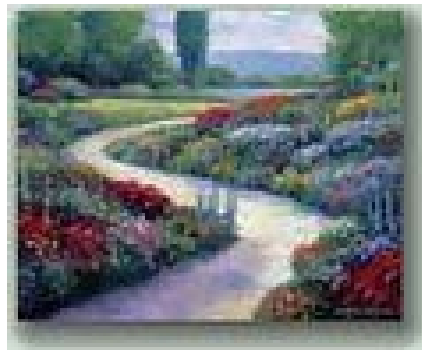
2007년 9월 토론토 리치몬드힐에 랜딩한 나는 여러가지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답답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1월중순 HMART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정착세미나가 있어서 수강 신청을 하였다. 정착 상담을 해보고 싶었으나 상담장소가 다운타운이나 노스욕이어서 혼자 찾아 나서기가 어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차에 가까운 곳으로 찾아와서 실시 한다니 정말 반가웠다.

2008년 2월부터 3개월간 캐나다 사회 복지 혜택 바로알기, 취업을 위한 종합정보, 타민족 음식문화 및 요리,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정보 및 혜택, 건강한 가정 지킴이, 영주권 카드갱신, 유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적으로 건강한 자녀키우기, 은행정보 영어교실, 아이들을 위한 대학입학 준비와 직업선택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단편적인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는 달리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초기 정착을 무료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어서 캐나다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초기정착의 불편이 많이 해소 되었으며,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움 받을 기관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였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실시한 대학입학준비와 직업선택을 위한 세미나는 캐나다 이민의 첫번째 목표인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향을 제시하여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강사진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인여성회 23년의 역사가 토론토 교민들의 실질적인 정착에 밑거름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리치몬드힐 인근 지역에 새로 랜딩하는 신규 이민자들이 HMART 한아름 문화교실의 한인여성회 정착세미나를 적극 활용하여 이곳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정착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다운타운 한인여성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리치몬드힐 지역에서도 실시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착의 기회를 간절히 기대한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진급에 실패한 학생에게 물어보면, **일년**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조산한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한달**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면, **한주**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시간**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면, **일분**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방금 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일초**의 가치를 깨달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어제는 역사입니다.

내일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Karl Perera*

##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

2008년1월 ~ 2008년 4월까지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회원, 후원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장을 위하여 한분한분의 성함을 기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UNDED B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toyenneté et  
Immigration Canada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